

“경쟁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한·일 대학출판부협회 제10차 공동세미나

이광래

강원대 출판부장

한국대학출판부협회와 일본대학출판부협회가 공동주최한 제10차 한·일대학출판부협회 공동세미나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東京 근교의 명성학원에서 열렸다. 한·일 대학출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일동안 치러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에서 강원대 출판부의 이광래교수가, 일본측에서는 동경대 출판부 山下正씨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는데, 다음에 이광래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미래학자들이 의하면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에는 아시아 경제 중심시대가 될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제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정치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문화적 우월성을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으로써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한자문화권의 결속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언어와 문자는 문학의 핵인 동시에 문화보급의 최대의 전력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양문화의 홍수앞에 이 지역의 문화가 무기력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경제적 영향력보다도 라틴어문화권, 특히 영어문화권에 대한 동양언어, 특히 한자문화권의 결속부재와 무기력 때문이었다.

한자문화권 대학출판부들의 결속 필요

도서출판 통계로만 보더라도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절대열세의 형편임을 알 수 있다. 1990년 일본은 40,576(학습서 689종 포함)종의 단행본을 13억8천3백만부 발행했고, 중국은 1989년 74,974종의 단행본을 58억 644만부 발행했으며, 한국도 1990년 41,712종의 단행본을 2억4천2백만부 발행했다. 금액으로는 일본이 약 62억 달러이고 한국이 2억4천만달러였다. 이에 비해 1989년 미국과 영국은 각각 5만종·정도의 신간(학습서 제외)을 75억부, 25억부씩 발행했다. 금액으로도 미국은 약 60억달러, 영국은 20억달러씩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비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거의 모두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된 데 비해 영국과 미국은 전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소비했

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이 ‘글로벌 북’(Global book)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는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문화적 대응방식만이 아니라 아시아는, 특히 한자문화권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시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측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일 대학출판부협회의 십년의 교류가 시작의 절반을 지내온 기반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시작은 나머지 절반을 위한 시작일 것이다. 다시말해 그것은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 보기 위한 시작일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자는 좀더 구체적인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필자발굴의 광역화: 한국·일본·중국 문화권 토대에 있어서, 그리고 한자 사용권 국가라는 점에 있어서 문화적 공통분모들이 많은 나라들이다. 때문에 이들 나라들간에는 의지여부에 따라서 필자발굴을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얼마든지 광역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 출판의 대행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 본교의 출판부가 중국의 遼寧大, 吉林大 출판사와 상호출판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둘째, 공동제작: 공동제작은 절차와 방법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재의 협력을 통해서 우선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공동된 소재를 공동 제작하여 자국에서 제작판매하는 경우이다. 최근 한국의 한 출판사(열화당)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아세트사와 25년동안 100종의 도서를 공동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中央論社가 참여했다.) 물론 책 임기획은 프랑스의 아세트가 맡았다. 8개국에서 동시 출판되는 이러한 공동제작 방식은 무엇보다도 공동제작·인쇄를 통해 원가절감의 효과가 우선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학출판부들도 채택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공동제작은 제3국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저술(영어·불어 등 제3국어도)과 출판 및 판매를 분담하여 세계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한자문화권의 학문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전시회: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과 일본은 매년 엄청난 양의 도서를 출판해 내고 있다. 대학출판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양국의 대학출판 관계자들은 서로 얼굴만 알 뿐 그들이 만든 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 한국에서는 일본 대학출판사에서 어떤 책들이 발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시회는 첫째, 책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이고, 둘째 책의 보다 많은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다시 말해 전시회는 책의 홍보와 판매에 있어 최상의 전략이다. 그렇게 볼 때 한·일 대학출판부의 교류는 이제 얼굴 교류뿐만 아니라 물론 교류에도 착안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동 전시회의 개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미나 행사와 때를 맞춰 각국어 격년제로 개최함으로써 교류관계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양국인에게 대학출판물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정보교환: 한·일 대학출판부는 서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잘 모른 채 10년이나 사귀어 온 친구와 같다. 양국은 막연한 우의만을 다졌을 뿐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속도습을 보인 적이 없다. 최소한의 정보와 통계마저도 나눈 적이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학출판물의 통계자료와 도서목록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양국 출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매체역할을 양국의 대학출판부협회가 나누어 맡기를 필자는 제안한다.

경쟁 아닌 협력과 지원 절실

한자문화권의 결속은 이미 강조된 바이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쟁이 아닌 협력이다. 한자문화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도 상호협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반 수준과 조건이 동준하지 않은 국가들간의 협력이란 곧 지원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첫째, 마케팅(marketing) 지원: 한국 대학출판부들은 국내 시장의 마케팅에도 부진하지만 국제시장 진출의 경우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더욱 어렵고 서툴다. 일본 대학출판부의 축적된 경험은 한국 대학출판부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경험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지원: 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출

판기술을 가지고 있다. 편집과 제본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국민의 취향과 정서를 반영하는 매우 특이한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에게 가로쓰기보다 세로쓰기가 취향에 맞지만, 한국인에게 가로쓰기로 편집되어야 한다. 또한 거기에 맞춰 일본책에선 2단 조판이 흔한 일이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매우 거부해 한다. 이처럼 편집과 제본은 국민적 정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술부분도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편집 디자인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제본기술 등이다. 이것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책을 만드는 나라이면 모두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출판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책을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인 인쇄종이와 인쇄잉크, 원색분해, 컴퓨터 조판, 인쇄기술 등도 한국으로선 아쉬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출판 기술의 습득을 위해 한국 대학출판부 실무자들에게 일본 대학출판부의 단기 연수기회 제공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교류범위 확대: 한자 문화권의 결속이라는 전제 아래서(또는 예상되는 21세기 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한·일 대학출판부의 교류는 가속화·활성화와 병행하여 중국·북한과의 교류에도 관심가져야 할 때이다. 중국은 2000년도에 10만종의 단행본을 173억부 발행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천개가 넘는 중국의 대학 숫자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중국의 잠재력이다. 중국에는 北京大를 포함해서 27개 대학이 출판학과를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수의 대학출판사가 활성화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대학의 수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활성화의 부담이나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 대학출판사와의 교류는 지원, 특히 경제적 지원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후발을 돕자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앞서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성급한 일이지만 북한의 변화를 예상할 때 북한 대학출판사들과의 교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대학출판부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으로 열번째 열리는 한·일 대학출판부협회 정기세미나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더욱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